

# VAM 가격인상에 “접착제 반발”

## 11월 10달러 인상 머물러 ... 중국 VAM 가격은 700달러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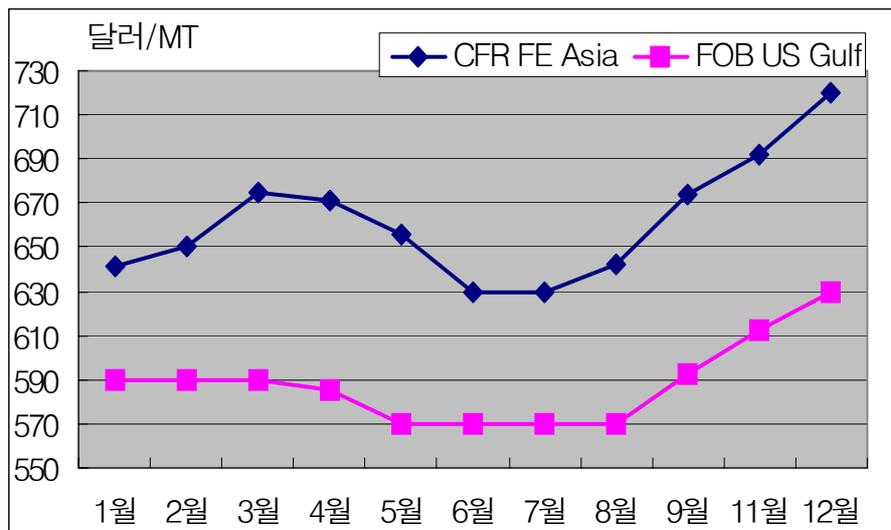
10월 톤당 50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였던 VAM(Vinyl Acetate Monomer) 가격이 10월 20달러 인상된 후 11월 역시 국제시황보다 낮은 톤당 10달러 인상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VAM 독점 생산기업인 삼성BP화학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급 타이트에 따라 대수요처인 EVA(Ethylene Vinyl Acetate) 및 PVA(Polyvinyl Alcohol) 생산기업들이 11월 가격인상에 비교적 동의한 반면, 소규모 수요처인 접착제 시장에서는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VAM 가격인상이 어려운 것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산 및 VAM 가격이 생산기업들의 고시가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BP화학 관계자는 “11월 VAM 가격은 톤당 10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VAM 가격은 11월 중국 VAM 가격이 톤당 7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오르고 인상폭은 Celanese의 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VAM 가격추이(2003)



VAM 국제가격은 2003년 1월 CFR FE Asia 톤당 641달러를 기록한 이후 3월 675달러를 고점으로 6월 630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0월 첫째주 톤당 660-680달러에서 11월 셋째주에는 톤당 730-750달러에 육박했다.

삼성BP화학은 국내 VAM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요처는 PVA로 동양제철화학이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2번째인 EVA는 삼성Atofina와 한화석유화학 등이 생산하고 있다.

VAE용은 Air Product Korea가 소비하고 소규모로 구매하는 접착제용은 삼성물산, 로지트, 한화, 삼영무역 및 OCI상사 등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